

# 與 지도부 해체...과도체제로

### 선거 책임 ... 김혁규·조배숙 최고위원도 사퇴 비대위 구성 주도권 싸고 계파간 갈등 커질듯

정동영 의장에 이어 김혁규, 조배숙 최고위원이 5·3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지도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등 임시 과도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내

주도권 및 대책 등을 놓고 계파간의 갈등도 확산될 전망이다. 김혁규, 조배숙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에서 거론되는 김근태 최고위원의 의장직 승계로는 당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지

도부가 일괄사퇴하고 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비상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의 노선을 비롯해 인적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원점에서부터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 구성은 지난 전 당대회에서 정동영 의장에 이어 차순우 특검위원 김근태 최고위원의 의장직 승계 방식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 與 조세·부동산 정책 변화 조짐

### 5·31참패 핵심원인 중 하나 '경제실패'로 꼽아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보완책 검토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패배의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경제실패'를 꼽으면서 조세정책과 부동산정책에 부분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크게 흔들리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1면> 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5·31 선거 이후 경제정책에 대해 재점검할 계획이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수렴을 토대로 하는 부분적인 보완책은 강구될 가능성이 있다. 사안별로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의 폭이 커지고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으며 ▲실수요자나 고령자들의 보유세 납부 시기를 일정기간 늦춰주는 과세이연 방안도 검토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타력세를 적용을 통

한 재산세 감면이 제동을 거는 방안은 당분간 보류될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전문위원은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보완대책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책의 골격과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정책의 근본을 흔들만한 조치는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참가자 늘어

### 광주정상회의 D-10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개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가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사일이 다가오면서 수상자와 저명한 평화·인권 운동가들이 잇따라 직간접적인 참가를 약속, ▲참가 예상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14명(단체 포함)이며 ▲세계 저명 평화·인권운동가 3명(단체 포함) ▲노벨평화상 수상자 중 영상 메시지를 통한 간접 참여 6명 등으로 총 참여자가 23명(단체)으로 늘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는 지난 2004년 수상자인 케냐의 왕가리 마타

이 환경자원부 차관과 1977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최근 참가 의사를 밝혀왔다. 또 저명한 평화·인권운동가인 도이 다카코 전 일본 사회당 당수가 참석의사를 통보해왔다. 이로써 이번 회의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리코베르타 멘추 톨파테말라 시민운동가·모이러 코리건 마그리 영국 평화운동가·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독립운동가·쉬린 에바디 인권운동가·국제적십자협회 등 총 14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참석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4일 오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참석한 남측 대표 박병원 차관(오른쪽)과 북측 대표 주종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여미지식물원을 찾아 연못에서 행운의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채 이자율 연 40% 이내로 제한”

### 법무부 '이자제한법' 부활... 내년 상반기 시행 추진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이 추진된다.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사민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공청회와 관계부처 회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 입이 의무화되며 호의로 빚보증을 서려는 사람은 미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민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공청회와 관계부처 회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 입이 의무화되며 호의로 빚보증을 서려는 사람은 미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

간인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개인간의 금전 대차거래시 최고 이자율은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이 적용되지만 현행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이 연 66%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와 재경부는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 하향조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1면 '印尼지진'서 계속

건물 잔해 위에서 칸막이를 막고 간 이 수술 방을 만들어 수술을 시작 한 임 과정은 쏟아지는 땀을 닦아가며 30여 분 만에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한때 숨을 내쉬기도 힘들어했던 이병씨는 "병원에서 찾아왔지만 간단한 치료 후 수술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지금껏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마음을 찾아준 한국 의료진과 하늘에 감사한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광주기동병원 의료진은 현재 육아카르타 베데스다 병원팀과 피해현장 현지 진료팀 등 2팀으로 나눠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다. 육아카르타 시내에서 가장 큰 베데스다 병원에는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수술 및 치료를 기

다리고 있다. 병실에는 30여 명의 환자들이 몰려들어 복통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환자 대부분은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다. 입원 중인 힌드리(여·25)씨는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있지만, 지진으로 집이 모두 무너져 퇴원 후에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최용수 과장을 비롯한 광주 기동병원 수술팀은 이곳 병원에서 가장 큰 수술실을 배정받고 매일 4~5건의 수술을 하는 등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의료진은 또 환자 및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에서 준비해온 의약품과 식료품 등을 나눠주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어 재난 현장에서 현지인들에게 '1인 2역'의 천사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본사 백인호사장 리 출국 세계신문협회 총회 참석

백인호(사진) 광주일보 사장이 5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개막되는 제59차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와 제13차 세계편집인포럼(WEF) 참석차 4일 출국했다. 세계 신문산업의 획기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신문, 혁신의 새 시대'라는 주제로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언론사 경영인 등 1천 5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권영빈 중앙일보 사장,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신상민 한국경제 사장,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 최승의 강원일보 사장, 이태열 대구일보 회장, 조준호 대전일보 사장,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등도 함께 참석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빛日만평

- 김중두



국민들 열 받아서 더 답나보다

## 2006학년도 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2.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3. 모집기간: 2006.6.15 ~ 2006.6.25

4. 모집방법: 서류심사, 면접

5. 지원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6. 지원서류: 지원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사진

7. 지원처: 조선대학교 대학원 입학처

8. 문의처: 061-270-1111

조선대학교 대학원 입학처

200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2.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3. 모집기간: 2006.6.15 ~ 2006.6.25

4. 모집방법: 서류심사, 면접

5. 지원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6. 지원서류: 지원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사진

7. 지원처: 조선대학교 대학원 입학처

8. 문의처: 061-270-1111